

12-15 스페셜 플레이스

일·삶 균형을 위한 퍼즐 조각 찾기

최근 퇴근 후의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워라벨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다. 일을 마치고 나선 누구나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기 마련. 당신의 워라벨 퍼즐을 맞춰줄 이색 취미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자.

붓 끝에 마음을 담아

퀵맵스튜디오

설 새 없이 일하다 문득 바라본 내 모습,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지루한 일상에 숨결을 불어넣을 힘, 예술을 통해 얻어 보면 어떨까.

부전동의 퀵맵스튜디오에서는 누구라도 화가가 될 수 있다. 이곳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미술 공방이다. 공방의 이젤과 진열장 위에는 작품들이 가득 놓여 있다. 마치 전시회에 온 것처럼 저절로 눈길이 간다.

이곳의 커리큘럼은 원 데이, 쓰리 데이, 포 데이 클래스부터 정규 클래스까지 다양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업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

정규 클래스의 경우 좋아하는 화가, 붓 쓰는 스타일 등으로 자신의 그림 취향을 알아보는 과정을 먼저 진행한다. 테스트 후에는 수채화, 동양화, 유화, 아크릴화, 판화 중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일만 남았다.

스튜디오를 빛내주는 수강생들의 그림들. 그 안에는 색색의 물감으로 풀어낸 감정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스트레스는 붓 끝에 털어내고 삶에 색다름을 칠하고 싶을 때, 이곳 퀵맵스튜디오를 기억해두자.

퀵맵스튜디오

주소 부산진구 부전로65번길 3 4층

문의 010-4560-0255

예술이 있어 특별한 하루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본다. 미술관에서 그림도 감상하고 싶고, 영화관으로 가서 여운이 남는 영화 한 편도 보고 싶다.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을 때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에선 이 모든 걸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까.

아트시네마는 부산 중구의 부산은행 신창동 지점을 리모델링하여 탄생했다. 붉은빛, 주황빛이 조화를 이룬 건물 외관부터 웬지 예술적인 분위기가 풍겨온다. 미디어 아트 조형물 ‘도경(빛에 이르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는 더욱 아름다운 빛을 뿜낸다.

1층의 은행 지점 위로는 모두 아트와 연관된 공간들이다. 2층엔 카페와 갤러리, 3층과 4층엔 소극장과 1인 창작실, 세미나실이 있다.

25년째 BIFF(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고 있는 부산은행은 아트시네마를 BIFF와 연관된 영화 상영 등 영화·영상 관련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BIFF가 처음 개최됐던 남포동 일대에 영화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 작년 12월에는 이곳에서 관객의 참여로 만들어진 제5회 관객영화제도 열렸다.

아트시네마 2층의 갤러리로 내려오면 영화뿐만 아니라 미술 전시회 또한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행복을 담은 민화> 회원전, 문대호 제6회 개인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예술과 벗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심 속 열린 문화 공간,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로 당신을 초대한다.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주소 중구 광복중앙로 13

운영시간 (2층 갤러리) 11:00~18:00

문의 (2층 갤러리) 051-246-8975, 051-620-3813

파도치는 선율의 바다

무지크바움

피로한 하루 끝에서 살아 숨 쉬는 음악과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가 볼 만한 공간이 있다. 고전 음악 전문 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바로 그곳. 거제동에 자리 잡은 무지크바움은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곳의 음악 홀에 들어서면 무대 위 피아노와 스피커, 앰프 등 전문 오디오 기기가 눈에 들어온다. 45석의 아늑한 좌석과 벽면에 자리한 4,000여 장의 CD·DVD도 돋보인다.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근심거리는 잊고,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다.

클래식이 아직은 조금 낯선 당신일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무지크바움에서는 4년째 음악 평론가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강연이 개최되고 있다. 한 달에 2번, 화요일 저녁마다 진행되니 퇴근 후 가벼운 마음으로 가볼 만하다. 클래식도 듣고, 인문학 공부도 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간. 지금껏 ‘바그너와 니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등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왔다.

무지크바움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월드 뮤직,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음악을 감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음악인들을 초청해 연주회도 진행하고 있다. 오늘도 수고한 나를 위해, 무지크바움의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 보면 어떨까.

무지크바움

주소 연제구 중앙대로 1225

문의 070-7692-0747

32-33 시간을 걷다

부산 고유의 문화를 꽃피우다

알티비피 얼라이언스

사진 제공_알티비피 얼라이언스

바다 위에 눈부시게 빛나는 섬, 영도. 빼어난 풍경이 널리 알려지며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영도에 최근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 근원지는 바로 알티비피 얼라이언스. 지역이 지닌 가치에 주목하는 공간, 알티비피로 가본다.

지역이 품은 가능성의 뿌리 찾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알티비피.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살핀다. 그리고 그것의 활용 방법과 가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나간다.

회사명인 알티비피(RTBP)는 Return To Busan Port의 약자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그 뜻에서부터 부산 특유의 문화를 가꿔나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끄티, 과거와 오늘이 맺은 결실

알티비피는 메이커·코 워킹 플레이스 ‘플랫폼135’, 영도의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리조트 ‘비탈788’, 복합 문화 공간 ‘끄티’ 등 여러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끤티는 알티비피만의 색다른 시도가 보다 돋보이는 장소다.

이름처럼 영도 끝에 자리 잡은 끤티, 원래는 조선·항만 물류 창고로 이용되다 언제부턴가 방치됐던 곳이었다. 오래된 창고는 그 외관을 유지한 채 영도 이색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끄티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역시 거의 옛 창고 구조와 비슷하다. 얼핏 보면 허전한 공간이지만 전시, 공연, 설치 활동이 진행돼 매번 색다른 느낌으로 채워진다.

끄티에서는 카누 만들어 타기 학교, 장애 예술인 쇼케이스, 테크노 파티, 오디오 비주얼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됐다. 바다가 한눈에 보여 한층 더 예술적인 풍경이 연출되는 끤티의 바깥 풍경도 이곳의 백미다.

조선·항만 물류 창고를 보존한 끤티는 조선업 호황기였던 영도의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다. 더 나아가, 알티비피는 이곳에 예술의 색을 입혀 다시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는 중이다. 영도의 숨은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알티비피는 오늘도 도약의 닻을 올린다.

주소 : 영도구 해양로 110

문의 : 051-418-7666

51 라이프+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

새해 다짐으로 가득했던 1월이 지나고 어느덧 찾아온 2월. 굳게 세웠던 목표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문화생활을 통해 의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면 어떨까.

다니엘 보이드 : 항명하는 광휘

2019. 12. 13. ~ 2020. 02. 29.

국제갤러리 부산점

다니엘 보이드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렸다. 그는 호주 원주민 출신 작가로서 2014년 불가리 미술상을 받았다. 그의 그림에는 대부분 흰 점들이 찍혀있는데, 이는 호주 원주민의 전통회화 기법을 따른 것이다. 보이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유럽의 관점에서 해석된 호주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 호주 원주민들의 삶을 향한 그의 시각이 궁금하다면 국제갤러리로 나서보자.

케니 지(Kenny G) 월드투어 발렌타인 콘서트

2020. 02. 23.

백스코 오디토리움

세계 3대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 지가 부산을 찾는다. 제36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연주 작곡상을 받은 그는 ‘송 버드(Songbird)’, ‘러빙 유(Loving You)’ 등의 명곡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최근 <Use This Gospel>을 발매하며 다시금 색소폰 연주자로서의 영향력을 입증한 케니 지. 2월 23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의 감미로운 연주가 시작된다.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2020. 02. 26. ~ 2020. 03. 08.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 청년 연출가의 뮤지컬이 막을 올린다. 2019년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 제작지원사업 선정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 최우식은 1918년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출판사에 취직한 이후, 세 사람을 만나 독립운동 모임을 조직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고민하던 소시민의 애환이 공연장 가득히 울려 퍼진다.

코믹 연극 오백에 삼십

2020. 02. 22. ~ 2020. 02. 23.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

개성 만점 코믹 연극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오

순도순 함께 살아가는 돼지 빌라 사람들. 인생에 허덕이는 허덕, 뺨질거리는 고시생 배변, 백치미 흐르는 공주병 환자 미스 조 등 현실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지친 일상 속 웃음이 필요한 당신에게 적극 추천!

